## 남다른 애족심과 조직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 수상

권혁만 충청북도종친회 사무처장, 권해옥 회장, 권갑수 부산청장년회장, 권여환 제례위원(왼쪽부터)

제45차 정기총회에서 별유사 권여환씨와 권갑수 부산청장년회장 그리고 권혁만 충청북도 종친회 사무처장 등 3명이 각각 공로패를 수상했다. 권여환씨는 제례위원으로서 별유사로 봉직하면서 춘추향사에 헌신하였고 시조 묘소를 지켜 안동권문의 자존심을 드높인 학림공 권방 선생의 묘소를 남다른 애족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10여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본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갑수 부산청장년회장은 2019년도 제31회 전국청장년회 체육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권혁만 충청북도 종친회 사무처장은 종친회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청주종친회 등 조직의 결속을 위해 노력한 공이 지대하므로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권처장은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 추진 시 지역으로는 충청북도 종친회(회장 권태호)가 가장 많은 서명을 받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 권기식 부회장, 중국 조어대서 한중도시우호협회-중국국제우호연락회 교류 행사 개최

한·중 교류에 대해 대담하는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왼쪽)과 신치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와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7일 중국 국가 영빈관인 조어대(釣魚臺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초청 형식으로 한·중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만찬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시 숙소였던 조어대 국빈관 8호루에서 열렸다.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을 맺은 중국국제우호연락회와 함께 한중 공공교류를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신치 중국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은 "한중도시우호협회와 공동 주최한 한중 민간 고위급 전략대화의 성공은 한·중 공공교류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한중도시우호협회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교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국제우호연락회는 지난 1984년 덩샤오핑의 지시로 설립된 중국의 대표적인 공공교류 기구로 북한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천윈 전 부총리의 장남인 천위안 전 정협 부주석이 회장을 맡고 있다.

## 권숙자 순창군다문화센터 전 총괄팀장,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은 순창군다문화센터 권숙자 전 팀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전북 순창군다문화센터 권숙자 전 총괄팀장이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9년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전 팀장은 2008년부터 10여 년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를 시작으로 교육지원청 학생 상담사, 순창군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상담사, 순창군 다문화지원센터 총괄팀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해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309명의 다문화가족들의 공동체문화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에게 맏언니, 친정어머니처럼 살갑게 다가섰고, 두터운 신뢰를 받아 왔다.

## 권기봉 위원장 대통령 표창

권기봉 전국우정노동조합 전북본부 위원장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7일 열린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권기봉 위원장은 전북지역 1500여명 조합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 공로로 역대 전북본부 위원장 중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합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융합한 결과"라며 "전북우체국 조합원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조합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봉 위원장(왼쪽)

권 위원장은 지난 1982년 입직해 37여년동안 근무하면서 익산우체국 우정노조 지부장, 전국우정노조 전북지방본부 총무국장, 전국우정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 대종회 장학생 10명 선발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 지급

대종회에서는 각 지역종친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대 권윤지 학생 등 대학생 1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제45차 정기총회에서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대종회 장학금은 권웅렬 고문이 작년에 이어 매년 1000만원씩 대종회에 기증하여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장학생 선발에 많은 지원자들이 대거 신청해서 선발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대종회에서는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선발한 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앞으로 안동권문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선발된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지역 종친회 | 학교명(학년) | 성 명 |
|---|---|---|
| 대종회(서울) | 서울대 (2년) | 권 윤 지 (여) |
| 대종회(서울) | 우송대 (1년) | 권 태 운 (남) |
| 부산 종친회 | 동주대 (2년) | 권 현 주 (여) |
| 대구 종친회 | 성균관대(3년) | 권 오 윤 (여) |
| 경주 종친회 | 경남대 (4년) | 권 세 은 (여) |
| 안동 종친회 | 안동대 (4년) | 권 오 학 (남) |
| 산청 종친회 | 중앙대(1년) | 권 령 혜 (여) |
| 강릉 종친회 | 전북대(4년) | 권 용 진 (남) |
| 호남 서남권 | 원광대 (3년) | 권 오 중 (남) |
| 청주 종친회 | 청주대 (3년) | 권 오 윤 (여) |

## 금천구 종친회 제16회 정기총회 개최

금천구 종친회 제16회 정기총회가 5월 5일 오후 7시에 독산동 권동희 부회장 식당인 국빈관 2층에서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정기총회는 권태복 회장의 인사말, 권이호 총무의 경과보고, 권대영 감사의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4년간 수고한 권태복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이 주요 의제가 되었다. 임원개선 결과 신임회장에 권대영 감사가 참석회원 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권영훈 전 부회장이 선출되었다. 제5대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권영주, 권지섭, 명예회장 권태복, 회장 권대영, 감사 권영훈, 부회장 권오준, 권동희, 권형순, 권세영, 권오순, 권필원, 총무 권이호

## 영덕군 종친회 정기총회

영덕군 종친회(회장 권성덕) 제69회 정치총회가 5월 18일 영덕군 영해면 괴시2리 안동권씨 종친회관에서 100여명의 족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회는 개회선언, 국기에 대한 경례, 시보묘소 망배, 내빈 소개, 임원 소개, 권성덕 회장의 인사말, 권병윤 고문의 축사, 권유달 감사의 감사보고, 권오기 사무국장의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성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숭조사상과 애족사랑으로 안동권문의 자손된 도리를 다하자"고 말했다.

## 권오복, 군산 미래의 숲 조성 숨은 일꾼 유공 봉사자 표창

군산시가 지난 5월 2일 자발적인 참여로 가로변 꽃길 조성, 공원 관리 등 녹지관리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 중 동흥남동 권오복씨(74)는 군산시로부터 녹지관리분야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권씨는 팔마산 흥남공원의 잡초제거는 물론 수목정비, 등산로 정비로 지역주민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원 생활 환경개선봉사활동을 실시해왔다.

## 권려원 경운대 간호학과 총괄학과장 대구시장 표창

권려원 경운대 간호학과 총괄학과장(사진)은 5월 2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2019 대구국제마라톤대회 의료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시장 표창을 받았다. 권 학과장은 "앞으로도 의료인으로서의 본분과 사명감을 깊이 새겨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동부녀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권씨 안동부녀회 정기총회가 4월 23일 오전 11시 안동시 운흥동 만남의 광장에서 김남년 부녀회장 등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숙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먼저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시조 묘소에 대한 망배, 순국선열 및 선조에 대한 묵념, 내빈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영세 안동시장, 권영길 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광택 시의원, 권기덕 시의원, 권남희 시의원, 권숙동 안동권씨 종친회장, 이귀하 서무과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하였다. 특히 93세인 김복주 제2대 부녀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김남연 신임회장은 우리 모두는 숭조지심을 가져야 하고 애족사상을 고취하여 권문의 딸과 며느리답게 모든 행동을 조심하자고 말하며 기해년 한 해 동안 부녀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다음 감사보고와 권영숙 총무부장의 결산 및 경과보고와 기타토의를 한 다음 기념촬영을 하고 점심식사 후 산회했다.

## 계룡시, 고귀한 생명 구한 의로운 영웅 권태훈씨 표창

고귀한 생명을 구한 숨은 영웅 권태훈(27)〈사진왼쪽〉씨가 계룡시 최홍묵 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권태훈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경 계룡대 제3정문 버스 정류장 앞에서 과호흡으로 정류장 앞에 쓰러져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침착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119구급대에 상황을 설명, 병원후송을 도왔다. 권태훈씨의 침착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급한 와중에 은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학생의 부모는 시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 은인을 찾고자 수소문했고, 이를 통해 권씨의 의로운 행동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 부고

#### 권영각 전 건설부장관 별세

권영각(權寧珏, 복야공파 34세, 1931~2019) 전 건설부장관이 1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권 전 장관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국방부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제21대 국방부 차관을 지냈으며, 노태우 정부 때 건설부 장관을 역임했다.

자녀로는 아들 권오준 LG화학 부사장, 딸 권정혜(고려대 심리학과 교수), 명혜, 미혜, 경혜 씨 등 1남 4녀이다.